

기록 오류-1



솔로몬이 성전의 비품들 중에 돛을 부어 원형의 바다(목욕탕)를 짓는 내용이 열왕기상 7:26(2,000명) 역대하 4:5(3,000명)에 나옵니다. 이 두 곳에서 공히 지름이 10규빗(약 4.5미터)인데 둘레가 30규빗(약 13.5미터)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에서 지름이 10이면 둘레는 10π 가 되며 3.14159로 시작하는 무리수로 31.4규빗보다 커야 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최소한 31.4규빗이나 30규빗을 넘는다는 식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그냥 30규빗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가 기본적인 수학상식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가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여 여호수아는 잔인하게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시간을 벌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74km입니다. 만약 지구가 이 속도로 돌지 않고 선다면, 적을 무찌르기는커녕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떨어져나가 항량한 우주 속으로 던져져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10:13에 지구의 회전이 멈춘 것이 ‘야살의 책(the Book of Jashar)’에 적힌 기록에 따라 이루었다고 주장하는데, 야살의 책은 조로아스터교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조로아스터의 부인 보비(Hvovi)가 속세의 아이들이 아닌 아들 셋을 낳는다. 동정녀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는 식으로 얻은 자식들이다. 네료상(Neryosang)이라는 천사가 이들을 낳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들은 수많은 성령(천사)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모두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큰 아들 후시다(Hushedar)는 우주를 혁신하는 첫 천년왕국에 등장한다. 그는 신과 협의하여 태양(빠르게 움직이는 말)을 열흘 낮과 밤 동안 멈추게 하고, 태양에게 ‘움직여라’는 말을 하여 움직이게 하는 기적을 행사하여, 모든 인류가 마즈다를 신봉하는 ‘선행 종교’를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1) 이는 여호와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야살의 책이 여호수아 10:13 외에 사무엘하 1:18에도 언급됩니다. KJV판에는 ‘유다의 아이들에게 활의 사용을 가르치도록 하라; 이것은 야살 책에 기록되어 있다[(Also he bade them teach the children of Judah *the use of the bow*: behold,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Jasher*), 전체 문장을 괄호로 처리]라고 합니다. NIV판에는 ‘유대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and ordered that the men of Judah taught this lament of the bow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Jashar)]라고 내용이 바뀌어 있는데, 야살 책이라는 것을 가능한 한 숨기려고 시도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440년에 역사서를 저술한 헤로도투스(기원전 484?~425?)는 그들(페르시아인, 조로아스터교 신자)이 진리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최대의 모욕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아들이 다섯 살[부터 20살 까지-역사서 내용] 될 때부터 딱 세 가지를 가르쳤으니; 말 타는 것, 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었다’” 2)라는 내용이 나온다. 3)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진리를 말하라는 것과 관련하여 올바른 생각(正思), 올바른 말(正語), 올바른 행동(正業)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팔정도(八正道: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얘기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나아가고, 바르게 도를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정함)는 조로아스터교의 삼정도(三正道)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팔정도의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조로아스터교의 삼정도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약성경의 창세기 천지창조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물론이고 여호수아나 사무엘 및 신명기 등 구약성경의 많은 내용이 바빌론 지역 문화(조로아스터교 포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4에 금식동물을 나열하면서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낙타의 굽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레위기 11:5-6에 사반[너구리의 일종]과 토끼가 새김질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구리나 토끼는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1:19에선 포유류인 박쥐를 두고 먹을 수 없는 조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여호와가 저지른 이러한 오류에 대해 함구하며, 이를 바꾸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 왕 시절의 인구조사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9에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지역 80만 명, 유대지역 50만 명으로 총 130만 명이고, 역대상 21:5에는 유대지역 47만 명을 포함하여 전체가 11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

“기원전 7세기 말 유다 왕국의 총인구는 몇 차례 집중적인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하여 밝혀진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으며, 그 숫자는 대략 7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총인구의 20%인 1만 5,000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다른 1만 5,000명이 수도 부근의 농업 지대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4)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기원전 332년)시키고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기원전 4세기 말 바로 이전인, 기원전 5세기와 4세기 사이에 호구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바빌로니아 유배 이후에 돌아와 거주하던 예후드주 전역의] 유대 인구가 3만 명으로 나와 있다. 위대한 학자

비커만은 알렉산더 시절의 예루살렘을 초라한 부족의 불분명한 거주지라고 묘사했다. 그래서 알렉산더 이전의 그리스 책자 어디에도 유대인을 언급하는 경우가 없다.” 5) “이후로 유다 왕국은 예후드로 불리게 되었다. 페르시아 제국이 유다 왕국 자리에 설치한 주에 붙인 아람어 명칭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예후딤(Yehudim) 혹은 유대인(Jews)으로 불리게 되었다.” 6)

“에스라 2:3 이후에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열거되어 있다. 에스라 2:64에는 총인원이 4만 2,360명이다. 하지만 열거된 숫자를 조금 신경 써서 더해 보면 2만 9,818명으로 1만 2,542명의 차이가 난다. 느헤미야 7:8 이후에도 에스라와 같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열거된다. 7:66의 총계가 에스라와 같이 4만 2,360명인데, 적혀진 숫자들을 더해 보면 3만 1,089로 1만 1,271명이 빈다.” 7)

솔로몬 시절 병거의 말과 외양간의 숫자가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며”(열왕기상 4:26)라고 나오는 반면, “병거 메는 말의 외양간은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 명이라”(역대하 9:25)라고 기록되어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여호야긴(Jehoiachin)과 관련하여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다스렸다’(열왕기하 24:8)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팔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역대하 36:9)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아하시야(Ahaziah)와 관련해서는 ‘왕이 될 때에 22세라’(열왕기하 8:26)와 ‘왕이 될 때에 42세라’(역대하 22:2)고 적혀 있어 2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라 5:1에 나오는 스가랴(Zechariah)라는 선지자에 대해 KJV판에서는 잇도(Iddo)의 아들이라고 하고, NIV판에는 잇도의 후손(descendant)이라고 영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개역개정판은 잇도의 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은 스가랴 예언서의 1:1과 1:7에 잇도의 아들인 베레가(Berekiah)의 아들이 스가랴라고 쓰인 것을 고려하여 잇도의 손자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잇도는 역대하 13:22에서 선지자로 나오고, 그 당시의 왕은 르호보암(Rehoboam)으로 기원전 930~920년에 유다국을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에스라 5:1에는 기원전 430년대에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한창일 때, 스가랴가 선지자 학개(Haggai)와 함께 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500년 세월의 간격을 두고 따로 존재한 사람을 부자지간으로 엮는 것이 불편했는지, NIV판에서는 아들을 후손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출처:

- 1) *Life and Teachings of Zoroaster, the Great Persian*, Loren H. Whitney, BiblioBazaar, 2009: 60
- 2) *Life and Teachings of Zoroaster, the Great Persian*, Loren H. Whitney, BiblioBazaar, 2009: 55
- 3) *Herodotus the Histo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62-63 (I-136, I-138)
- 4)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이스라엘 핑켈스타인, 닐 애셔 실버먼, 오성환 옮김, 까치, 2002: 357
- 5) *The Laughing Jesus*, Timothy Freke & Peter Gandy, Three Rivers Press, 2005: 35
- 6)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이스라엘 핑켈스타인, 닐 애셔 실버먼, 오성환 옮김, 까치, 2002: 346
- 7) *Thomas Paine Collection*, Forgotten Books, 2007: 389-90, 내용 요약